

中世哲學과 基督教(2)

金允經

五,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에問答派

校『노시쓰』派가 그리스도敎理를 組織하려고 하다가 敎會信仰과 相反함에 이름에 對하여 敎會의 信仰을 基礎로하고 그우에 敎理의 組織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問答派 敎會學校외다. 問答法을 敎育上方法으로 採用한 故로 이 名稱을 엿게된 것이외다. 이 學校는 第二世紀末에 알렉산드리아에 設立된것이외다. 그들은 그리스도信仰에 知識的 統一을 주려고 한 點에서는 『노시쓰』派와 共通되나 『노시쓰』派와 갓치 異敎的 要素를 混入함이엄시 敎會의 信仰을 힘써 尊重한것이외다. 그 勑立者는 판타이노스(Pantainos) 지마는 重要한 人物은 그의 弟子인 클레멘스(Clemens of Alexandria)와 그의 弟子 오리게네스(Origenes, 185-254)올씨다.

클레멘스는 紀元二百年頃의 사람으로서 그는 플라톤 思想에 『스토아』學派의 思想을 混和하여 그리스도 敎理를 組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後世의 그리스도 敎會를 爲하여 神學의 大組織을 企圖한것은 클레멘스의 뒤를 잇대어 紀元二百三年에 校長이된 오리게네스올씨다. 그는 敎父哲學者 中에 最大한 學者외다. 그는 信仰이 知識에 基礎두고서야 救援은 可能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시쓰』派와 달라서 敎會의 所傳의 聖書로써 敎理의 標準의 淵源을 삼시고 言語的, 哲學的 知識으로 聖書를 解釋한것이외다. 그는 이르되 哲學은 宗教의 手段임으로 헬라 哲學은 그리스도 敎로 因하여 비로소 表現될 福音의 入口에 不過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이르되 神은 意志로 因하여 世界를 創造하는 絶對的 原因이며 또 說明할수 업는 無始 無終의 無限的 存在외다. 이러한 永遠的인 神은 直接으로 萬物을 創造할수 업고 萬物은 이 絶對的 超越的인 神의 發源인 『로고스』(Logos)로 因하여 創造된 것이외다. 前者는 숨은 神(Deus implicitus)이요. 後者는 나타난 神(Deus explicitus)이외다. 또 前者는 아버지 되는 神이며 後者는 아들 되는 神이외다. 아들 되는 神은 아버지 되는 神의 完全한 모양(姿)이외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이 아들 되는 神 곳 『로고스』가 肉體로 化成된것이외다. 人類는 이『

『로고쓰』의 引導로 因하여 救濟되어 조흔 福을 엿도 神에게까지 達하는 것이외다. 卽『로고쓰』에서 聖靈이 생기는 것인데『로고쓰』에서 생긴 聖靈에는 自由가 賦與된 故로 神을 썬나아 惡에 싸아진 것도 있는데 그 가장 墮落된것은 惡魔외다. 그러하나 惡魔라도 그리스도로 因하여 救援될수 있는 것임니다. 世界의 歷史는 聖靈이 그리스도로 因하여 救援되는 過程인 故로 世界는 마침내 一切의 것이 復活(Apokatastasis)되어 神의 나라가 完成될수 것이외다. 그러한데 아버지와 아들과 聖靈의 關係는 그 어는 것이던지 後者가 前者에 從屬하여 잇다는 關係외다. 이것이 오리게네스神學의 大體외다. 이에 그리스도敎의 仔細한 神學이 組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그의 思想 中에는 헬라哲學 中에서 빌어온 것이 만코 또 特히 그의 三位一體論과 世界終末論은 敎會의 傳統的 敎義와 一致되지 아니하는 바도 잇는 것이외다. 이갓치 敎會의 敎義의 哲學的 統一은 그로 因하여 된것이지 마는 그는 次次로 敎會에 異端示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가지 迫害를 맞다가 獄中의 괴롭으로 죽음을 재촉하게 되어 몸까지 犧牲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功蹟은 살아지지 아니한 것이외다.

六, 니케아會議以後의 敎父哲學

우에 말함 갓치 그리스도敎理의 根本思想은 오리게네스로 말미암아 대강 成立되었스나 그가 나중에 排斥을 받게 될 썬아니라 細密한 部分의 敎義에 對하여는 아직도 不分明한 點이 만았습니다. 大盖 그리스도 敎의 信仰은 神이 그리스도로 因하여 사람을 救한다 함에 잇는 故로 神, 그리스도, 사람의 三者를 中心으로하여 敎義上 다시 決定하여야할 問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問題들은 니케아會議以後 여러 會議로 漸次 決定하게되었습니다. 그 中 第一問題인 神性論은 三位一體說로 因하여 第二問題인 그리스도 論은 그리스도를 神人이라 봄으로 因하여 第三問題인 人性論은 나면서 사람은 罪에 물들은 者된 故로 스스로 自己를 救할여이업고 다만 神의 慈悲로 救援받을 썬이라는 것으로 決定되었습니다. 처음의 두 問題는 東方卽 헬라 敎會에서 論難되었고 第三問題는 專히 라틴敎會에서 決定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스皇帝는 紀元三百二十五年에 니케아에 三百八十名의 監督會議를 열었습니다. 이 會議의 中心問題가 된 것은 아리우스 (四世紀初)가 그리스도의 神性에 對하여 말한 것이외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長老인데 紀元三百二十年頃에 神은 絶對不變이요 『로고쓰』卽 그리스도는 神과 同一한 것은 아니니 그리스도는 萬物의 처음에 나타난 것임으로 神과 同一한 것이 아니라고 主唱하여 監督알렉산드로스와 爭論을 일으키게 된 것임니다. 니케아 會議는 卽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從者 아다나시우스(Athanasius)에

對한 아리우쓰의 論戰이 었습니다. 前者는 아들인 神은 아버지 되는 神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난(出生)것임으로 神과同質(Homonsius) 卽 差別은 잇스나 神이란 點에는 一致함이라고 한 것인데 結局은 이 말이 勝利를 었게 되매 아리우쓰는 會의 決議로 放逐을 當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콘스탄티노플會議로 聖靈(聖神)도 여기 加하게되어 神과 그리스도와 聖靈의 三位一體란 것을 確定하게되매 前에 이 三者를 從屬的 關係로 보던 오리게네쓰의 三位一體說은 排斥되고[말았]습니다. 第二問題인 그리스도 論은 에베소會議와 콘스탄티노플會議에서 그리스도는 純然한 神이요. 또 完全한 사람이라는 神人論으로 確定된것이외다. 以上 두 개問題는다. 東方教會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西方教會에서는 人性論 卽 人類의 罪惡과 그 救援의 問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問題에 對하여 解釋을 試驗한 것은 敎父時代의 最後의 大思想家되는 어거스티누쓰올씨다. 이이는 宗教史上뿐아니라 哲學史上에서도 注意를 일으킬만한 것이외다.